



# Passion Communication

##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소통이 우리의 에너지

ITER 한국사업단 토카막기술부 진공·내벽기술팀

왼쪽부터\_ 이영주, 사정우, 홍권희, 김덕희, 김현수, 김병윤, 김병철 팀장, 배익태, 김진호

선선한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 ITER 한국사업단 토카막기술부 진공·내벽기술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는 이들은 요즘 ITER 프로젝트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ITER 진공·내벽기술팀. 한창 바쁜 요즘이지만 긴장과 피로에 지친 모습은 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 종이비행기에 소망을 담다

“이거,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  
오늘 진공·내벽기술팀에게 떨어진 미션은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소원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하늘 높이 날리는 것. 처음에는 9명의 팀원 모두 종이를 앞에 놓고도 쑥스러운 듯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자신의 소망과 목표를 씩씩 적어내려 가기 시작한다.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담배를 끊겠다는 김병철 팀장의 굳은 결의가 종이에 푹푹 울려지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김진호 연구원과 반대로 살을 찌우겠다는 배익태 연구원의 문구가 재미있는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ITER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김현수 연구원의 문구 속에선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가족에 대한 애뜻한 사랑 그리고 ITER 프로젝트의 성공기원까지. 금세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빼곡하게 채운 서로의 소망을 보며 담소를 나누던 이들은 관심사와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중이다.

진공·내벽기술팀은 현재 ITER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진공용기 지지구조물 조달을 담당하고 있으며 KSTAR 장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개개인의 전문분야가 다른 만큼 건설과제에서 요구되는 통합적인 과제수행에 있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조건 안에서 훌륭히 성공시키는, 잠재력이 아주 많은 친구들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성실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도 순조롭고요.” (이영주 연구원)



■ ■ 다국적 프로젝트 수행 비결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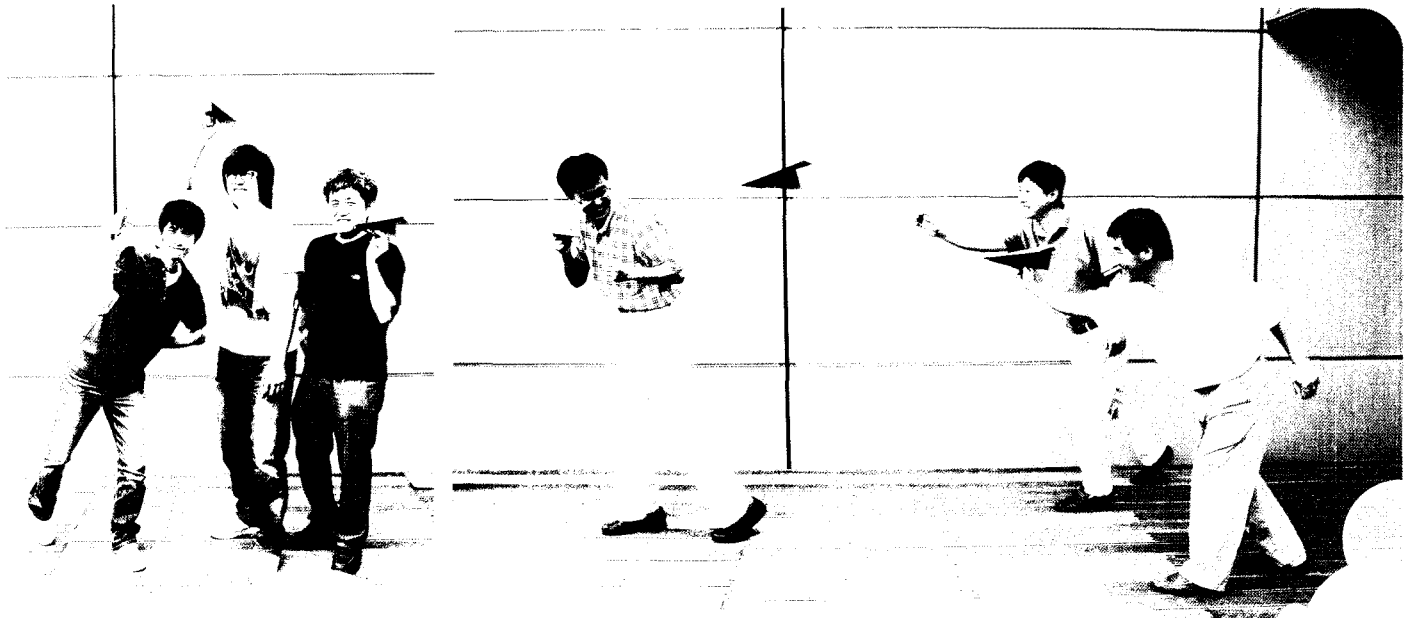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 함께 모이기는커녕 담소 나눌 시간도 부족한 이들이기에 오늘의 자리는 더욱 특별하다. 오가는 눈빛과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심을 나누는

그들에게선 소통의 즐거움과 함께 서로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ITER 프로젝트는 7개국의 연구소, 산업체, 각종 기관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므로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팀의 단결력 그리고 팀과 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공·내벽기술팀의 팀워크는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력은 녹록치 않을 터. 그러나 이들은 협력의 통로를 부지런히 찾아 움직이며 무사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결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죠. ITER 프로젝트는 ITER 국제지구와의 소통 그리고 산업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업무에 모여 있다 보니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힘든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상대 입장에서의 현안을 고려해보고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늘 고심하죠.” (사정우 연구원)

#### ■ ■ 열정과 동료애로 목표를 향해 가다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들고 밖으로 모인 연구원들은 시원한 가을바람에 비행기를 날려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등 친진한 모습이다. 늘 긴장 속에서 일과 연구에 매진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오랜만에 팀원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리라.

“팀이 구성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충돌이나 마찰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부족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도와가며 멋지게 일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김병철 팀장)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하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멋지게 일을 완수할 이들의 원동력은 힘든 시기도 함께 하는 끈끈한 동료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들에겐 멀고도 높은 과제가 수없이 놓여 있다. 하지만 열정과 신뢰로 푹푹 뭉친 이들이기에 높은 언덕과 큰 강도 무사히 건너 목표지점에 도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TER 사업이 무사히 마치는 날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NERI**

